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6. 20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 김 중 철

사무관 : 박 중 민

전 화 : 500-1857

쪽 수 : 5 P

별첨자료 : 있음(6 P)

이 자료는 배포시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0차원의 세계식량안보 논의 본격화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 G20농업장관회의, GRA장관회의 등 참석

-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6월22일부터 6월27일까지 G20농업장관회의(6.22~23, 프랑스 파리), GRA*(농업온실가스에 관한 국제연구연맹)장관회의(6.24, 이탈리아 로마), FAO(세계식량농업기구)총회(6.25~7.2, 이탈리아 로마)에 참석하여 세계식량안보와 농업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 등의 국제적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 G20농업장관 회의 -

- 6.22~23일 기간중 개최되는 G20농업장관회의는 금년 G20정상 회의 개최국인 프랑스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1차산품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함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로서, 지난 1월부터 3차례의 고위급회의를 거쳐 각료선언문과 행동 계획을 조율해 왔다.
- 식량수입국과 개발도상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침체에 이은 식량가격 급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식량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09년의 세계영양결핍인구는 역사상 최고치인 10억2,30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식량가격 하락에 힘입어 925백만명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수급 불안정은 사회불안 요소로 비화되고, 이는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 FAO식량가격지수¹⁾는 '11.2월 236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 지수는 232로서 '08년 세계식량 위기사 최고치('08.6월)였던 214에 비해 18p나 높음

○ 금번 G20농업장관회의에서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각료 선언문과 행동 계획을 만들어 이를 11.3~4일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각료 선언문과 행동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① 농업생산 및 생산성 향상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의지를 선언문에 포함하고,
-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국제 밀 연구 이니셔티브를 통해 밀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

② 시장정보와 투명성

- 농산물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FAO를 중심으로 농산물시장 정보시스템(AMIS :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을 창설하며,
- 조기경보시스템(EWS), 신속대응포럼(RRF)을 AMIS와 연계하여 운영

③ 국제 정책공조 강화

-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FAO역할 강화 및 자유로운 농산물 교역 증진을 위한 DDA협상 타결 필요성 강조

1) FAO가 1990년 이후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하여 매월 작성·발표(2002-2004년 평균=100)

- 바이오 연료와 식량생산 및 공급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식량과 경합하지 않는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연구 강화

④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변동성 영향 완화

- 개도국이 농업을 발전시키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위험관리 수단을 개발하며,
- WFP 등 국제 공여기관을 통한 인도적 긴급 식량비축 시스템 구축방안 강구

⑤ 농산물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 농산물 파생상품 시장의 관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강화 방안을 재무장관 채널에서 논의
- 우리나라는 세계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투자 증대와 개도국의 농업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특히,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 GRA 장관회의 -

- 한편, 6월24일에 개최될 'GRA 장관회의'를 통해 그 간 추진되어 온 GRA*(농업 온실가스 국제 연구연맹)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며,
-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된다.

* GRA : 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reenhouse Gases

- GRA는 농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식량 생산을 증대할 수 있는 녹색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연구 협력체로서,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35개 국가가 가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 GRA는 설립취지에 맞게 연구그룹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 연구그룹은 경종(croplands), 논농업(paddy rice), 축산(livestock) 등 3개 분야로 구분된다.
- 우리나라가 금번 GRA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온실가스 감축이 범세계적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지난 5.12일 농업분야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5%를 감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 또한,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국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도국 등의 국제사회와 공유·전파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37차 FAO 총회 -

- 6월25일부터 개최되는 제37차 FAO총회에서는 FAO 차기 사무총장 선거가 실시되며, 2012-13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회원국 분담금 비율 확정, 이사국 선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차기 사무총장에는 오스트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스페인 등에서 6명이 출마하여 경합을 벌이고 있다.

- 지금까지는 사무총장의 임기가 6년, 3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금번 FAO총회에서 선출되는 사무총장 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금번 총회에서는 농업·농촌발전에 있어 여성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 등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면서
 - 여성농업인은 농업활동의 보조자가 아닌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존 및 농업경영활동의 핵심인적자원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 FAO는 191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UN기구로서 세계식량농업과 관련된 가장 영향력있는 기구중 하나이다.
 - 우리나라는 금번 FAO총회에 이사국이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며,
 - 금번 총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이사국으로 선출되면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9회 연속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FAO에 전문가 및 고위급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식량농업과 관련된 이슈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G20 농업장관회의(6.22~23, 프랑스 파리)

1. 회의개요

-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각료 선언문 및 행동계획을 만들고, G20정상회의(11.3~4, 칸느)에 보고하기 위한 회의
- 참석대상 : 23개국(G20회원국, 초청국 3), 10개 국제기구
 - * G20국 : 아시아·태평양(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터키, 러시아, EC), 중동(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남아공)
 - * 초청국 : 싱가포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
 - * 국제기구 : FAO, IFAD, IMF, OECD, UNCTAD, WFP, World Bank, WTO,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UN HLTF(High-Level Task Force)
- 주요 일정
 - 6.22(수) : 대표단 고위급 회의 및 농업장관회의
 - 6.23(목) : 농업장관회의, 각료선언문 및 행동계획 발표

2. 논의배경

- 2008, 2010년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수입국과 개도국의 식량수급 어려움 가중
 - 일부지역에서는 폭동 발생 등 사회 불안요소로 비화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 세계영양결핍인구 : (2009) 1,023백만명(역사상 최고), (2010) 925백만명
- G20 서울 정상회의('10.11월)에서 식량안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함
 - FAO, OECD 등 국제기구에게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을 요청

참고 2 GRA 개요

1. GRA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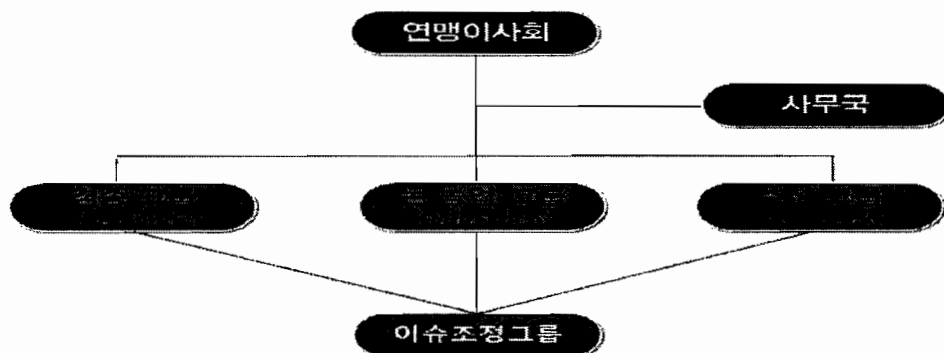
□ GRA는 지속적인 식량생산 추구·농업 온실가스 감축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협력과 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국제 협력체

○ 회원국의 자발적 공동노력에 기초한 상향식·개방형 R&D 네트워크

□ 회원국 : 34개국('11년 6월 현재)

* 미국,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가나, 노르웨이, 러시아, 핀란드, 태국, 남아공, 이탈리아, 중국

□ 거버넌스 : 연구그룹 중심으로 운영



○ 이사회 : 연맹의 전체적 틀과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을 결정·조정, 이사회 회의는 최소 1년에 1회 실시(주최국: 의장 차기 주최국: 부의장)

○ 사무국 : 연맹이사회 회의를 조직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 연구그룹과 이슈조정그룹의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

* 뉴질랜드 정부가 임시 사무국 역할 수행 중

○ 연구그룹 : 경종, 논농업, 축산 등 3개 분야로 되어있으며,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연구 수행

* 경종 : 미국, 논농업 : 일본, 축산 : (반추)뉴질랜드, (비반추)네덜란드

○ 이슈조정그룹 : 각 연구그룹에 모두 포함이 되는 포괄적 이슈에 관해 협력하고 연구 주도

2. 추진경과

- 코펜하겐 UN 기후변화 협약 회의시('09.12.16, 덴마크) 뉴질랜드 주도로 '농업 온실가스 국제 연구연맹' 창설 공동선언(참여국 : 23개국)
- 농업분야 기후변화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 협의체(GRA)의 창설을 제안한 뉴질랜드 정부는 우리나라에 동 협의체 가입 요청('10.3., '11.5.)
- 이후 고위급 회의 등이 개최되면서 창설이 구체화되고, 우리나라는 읍저버로 참여하면서 동향 파악
 - 회원국들은 고위급 회의 2회('10.4.7-9, 뉴질랜드, '11.2.28-3.3, 프랑스), 거버넌스 실무자 회의('10.7.27-28, 아르헨티나) 등을 통해 창설 구체화
- **GRA 각료급 회의 참여**(한장 서명식 1차관 참석 예정) 및 정식 회원국 가입: '11.6.24(금), 로마

3. 가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우리나라(농업분야)도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국제협력 필요성이 증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 농업분야는 '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5% 감축 계획 발표('11.5.12,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경우,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 가능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 및 국격 제고 가능
- '12년 국제기구로 전환을 목표로 하는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농업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 가능

*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10.6.16 창립) : 우리나라 주도로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협력하기 위한 비영리 연구소

<참고>

농업온실가스 감축 관련 우리나라 기술 수준

- ◇ 우리나라 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 및 기술수준은 GRA 참여 예정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비교(농진청)>

관련 기술	국내	주요 비교 대상국		
		EU	미국	일본
▪ 농산물 탄소 LCI 구축	50%	100%	85%	85%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75%	100%	100%	100%
▪ 탄소고정 및 순환기술개발	75%	100%	85%	85%

- 농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분야별 국제적인 기술 협력이 필요한 연구분야
 - (경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경지 관리 시나리오 개발 토양탄소격리 기술 등
 - (논농업) 논에서 물관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등
 - (축산) 축산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등
 - (공통) 온실가스 배출 측정법의 표준화 등 국가간 연구방법의 표준

참고 3 GRA 헌장(안) 요약

- (설립이념) 농업 온실가스배출 억제 노력의 지속가능성에 공헌하면서 식량안보목표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활동에 대한 자발적 투자와 협력 증진의 틀 마련(제1~7조)
 - 헌장(연맹)은 자발적 계획으로 회원국이나 다른 국내, 국제 법 하에 있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가 없음
 - 공공과 민간 연구 활동의 국제적 협력, 협동, 투자 증가, 연구성과의 공유 추구
- (거버넌스) 연맹이사회, 연구단체, 이슈조정그룹으로 구성(제8~35조)
 - 이사회 : 연맹의 전체적 틀과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을 결정·조정, 이사회 회의는 최소 1년에 1회 실시
 - 사무국 : 연맹이사회 회의 등 행정적 지원 제공, 연구그룹과 이슈조정그룹의 활동 지원 및 이사회 보고
 - 연구그룹 :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연구 수행
 - 이슈조정그룹 : 각 연구그룹에 모두 포함이 되는 포괄적 이슈에 관해 협력하고 연구 주도
- (연맹 참여) 회원국은 모든 연맹 활동에 있어 참여의 정도와 성격을 개별적으로 결정(제36~38조)
- (자원 기여)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자금이나 개인자원 기타자원을 기부 가능(제42조)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처우에 관한 문제와 연맹의 협력활동에 관련한 문제는 연맹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기에 특정 범위 안에서 한건씩 해결(제45조)

참고 4 제37차 FAO총회 개요 (6.25~7.2 이탈리아 로마)

1. 회의개요

- FAO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FAO 최고의결기구로서, 191개 FAO회원국 농업각료가 참석하여 세계 식량농업상황 등 논의
 - 금년에는 사무총장 선출, 2012-13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회원국 분담금 비율 확정, 이사국 선출 등 예정
- 참석대상 : FAO회원국(191개국), 국제기구, NGO
 - * 우리나라는 회원국이면서 이사국 및 아·태지역 총회 의장국 지위
 - 지역총회 의장국 : 아·태지역(대한민국), 남미 및 카리브지역(파나마), 아프리카 지역(앙골라), 유럽지역(아르메니아), 근동지역(수단)
- 주요 일정
 - 6.25(토)~26(일) : 사무총장 후보자 연설 및 선거
 - 6.27(월)~30(목) : 3개 회의장에서 회의 진행
 - 본회의장 : 세계 식량농업상황 논의(기조연설 및 토의), 회계감사, 분담금 규모 등 논의
 - 제1분과위 : 각 지역총회 및 산하위원회 결과 보고 등
 - * 우리나라는 제30차 아·태지역총회 결과 보고 예정(6.27일)
 - 제2분과위 : '12~'13 사업예산안, FAO개혁 추진 상황 등 논의
 - 7.1(금)~7.2(일) : 규정 개정 및 이사국 선출, 보고서 채택

2. 주요 논의내용

- FAO 차기 사무총장 선거
- 세계식량농업 상황 검토(회원국별 기조연설 및 토론)
- 2012~13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및 회원국 분담금 규모 결정
- 각 위원회 및 지역총회 활동사항, FAO개혁 추진상황 보고 및 검토
- 차기 이사국 선출